

#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go-Resilience and Social Adaptabilit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ce in Institutional Care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현 은 민

대학원생 박 헤 영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ersity

Professor : Hyun, Eun-Min

Graduate Student : Park, Hea-Yo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go-resilience and social adaptabilit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otective factors and the risk factors on ego-resilience and social adapt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40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in SPSS WIN 10.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go-resilience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was related to locus of control, depression and anxiety and dis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car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epression and anxiety and locus of control in the ord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ego-resilience.

Second, social adaptabilit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was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parent-child bond. Dis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care and social support in the ord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social adaptability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rd,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d higher level of ego-resilience reported better social adaptability.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risk factors such as dis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care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an the protective factors had more significant effects on ego-resilience and social adaptabi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This finding suggested that elimination of risk factors rather than development of protective factors was a more important task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

△주요어(Key Words) : 시설보호아동·청소년(children and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사회적 적응(social adaptability),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위험요인(risk factors).

### 1. 서 론

IMF 이후 사회·경제 상태가 나빠지면서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시설이나 아동임시 보호소에 맡겨지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 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은 감소하는 반면에 빈곤, 가족불화, 가출, 아동유기, 이혼, 재혼 등 가족 내의 문제로 인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 또는 의도가 없어 가족 내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진, 2002, 김은진, 2001).

\* 주 저 자 : 현은민 (E-mail : emh@andong.ac.kr)

시설보호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제27조)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전국 275개 시설에 18,074명이 보호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1) 이중 양육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239개 시설에 17,342명(보건복지부, 2003)이 보호되고 있다.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은 통제된 환경과 집단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게 된다(김수진, 2002). 김기환(1996)은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 대상상실로 인한 슬픔, 긍정적 정체감의 결핍, 가족과의 지속적 유대를 바라는 욕구, 위기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단체생활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따뜻한 감정의 교환과 안정감의 상실로 건전한 인성발달의 부진과 낮은 성취동기, 부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성격 특성,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아동에 비해 가출경험, 장기결석, 흡연, 자살충동의 경험이 유의하게 많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부적응이 관찰되고 있으며(신소희, 1984), 사회적 적응이나 사회생활의 원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혜승, 1973).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이 얼마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또래들과 잘 생활할 수 있는가는 성장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김은진, 2001.)

시설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적응에 차이를 발생시키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수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왔으며 연구들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 자체와 적응 간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으며 사회적 환경요인이나 개별적인 적응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인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보다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Billings & Moos, 1984).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구형모 황순택, 2001) 자아탄력 집단이 병리적 문제나 비행행동의 확률이 적고 지적이며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bins et al.,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인적, 과제수행적 상황에서 책임감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숙하므로(Luthar, 1991) 시설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잘 대처하

고 적응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 발달 관련 연구에서는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차이는 위협에 처한 개인들을 부정적인 경로에 처하게 하는 위험요소와 그러한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히고 있다(박현선, 1998). 여기에서 위험요소란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을 낳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이고, 보호요소는 취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협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소이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동일한 스트레스상황에서도 보다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에 처해 있는가와 더불어 이러한 위험요소의 영향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소를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박현선, 1998).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있고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경로에 처하게 하는 위험요소와 그러한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요소를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밝히는 것은 시설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하는 문제행동과 적응에 관련된 주제들은 많이 연구된 반면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관련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를 밝힌 연구도 부족하여 현재가속해체가 가속화 되어 시설보호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를 밝혀 시설보호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의 개념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의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의 복귀 능력이다(Garmezy, 1993).

Block 과 Kermen(1996), Block 과 Block(1980)은 ego라는 접

두어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고 명명하였다. Fine (1991)은 자아탄력성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역경에서 견디어 내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을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이며 심리적인 혼란, 외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이끈다고 정의하였다(Ford, 1985).

Block과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통제는 아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면,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자아탄력성은 당면한 상황과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시설환경에서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문제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 2. 자아탄력적인 아동·청소년의 특징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잘 헤쳐나가는 능력,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갖고있다(박은희, 1996).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박지아(2003)는 적응유연 청소년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사람에 대해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을 연구한 Havighurst(1972)에 의하면 발달과정의 관점에서 학교 적응유연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감은 학업 성취동기가 높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활동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박현선(1998)은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위험요소가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떨어지는 반면, 보호요소가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 3. 사회적 적응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시설

보호 아동과 청소년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은진, 2001).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아동에 있어 학교적응이 갖는 중요성은 일반아동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아동이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일 때 비로소 충분한 학업을 통한 학업성취가 가능해져서 궁극적으로 시설아동의 자신감이 고취되고 이후의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는 발판을 제공받는다.

어린시절 시설보호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성인지향적(성인들의 관심과 인정을 보다 많이 추구)이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별한 친구가 적고, 불안할 때 또래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고, 친구를 사귀는 데 선택적이지 않은 경향(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구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 등이다(Hodges, J. & Tizard, B. 1989, 정선옥, 2002 : 재인용).

시설청소년들은 시설보호가 종결되면 대부분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공식적인 사회지원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독립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고 가족 중심의 일차적인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충격과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신혜정, 1997).

따라서 시설보호의 중요한 과제는 시설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 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

보호요소는 취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협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소이며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협요소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요소이다(Jessor, 1991).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보호요소 중 시설이라는 환경에서도 높은 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위협요소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내적 보호요소로서 내외통제성과 가족관련 보호요소로서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사회환경적 보호요소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다(박현선, 1998; 양국선, 장성숙, 2001).

### 1) 내외통제성

일반적으로 내적통제성향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사람이 생활전반에서 적응력이 뛰어나 학교나 사회에서 성취도가 높다(Janssen & Carton, 1999;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내적통제의 청소년들이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이며(Alva & Padilla, 1991) 미래의 바람직한 인생설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Hentschel, Sumbadze, & shubladze, 2000) 아동기부터 내적통제성향의 발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이 포함되며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현, 1996).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선정된 지지원이 조금씩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Furman(1985)는 부모, 친구, 형제자매, 조부모, 교사를 지지제공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Harter(1985)는 부모, 교사, 학급동료, 친한 친구 등의 하위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구자은,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으로서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친구, 후원자, 부모님의 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와 사회적 지지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두 변인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경험은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Fullerton & Urano, 1994) 부모 및 또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auce, Felner, Primavera, & Ginter, 1982).

양국선·장성숙(2001)도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관계의 지각된 안전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교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학업성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배려 등의 정서적인 지지 및 호기심의 충족, 친절한 정보제공 등의 정보적 지지가 필요하다(이숙·최진아, 1996).

Buhrmester(1990)와 Levitt, Guacci, & Levitt(199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의 사회적 적응능력 및 학업성취 등의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 3) 부모유대관계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에 의하면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 관계로 높이 평가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성향이 낮고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utter(1987)는 부모-자녀간의 좋은 관계가 가정불화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장애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호요인으로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스트레스와 역경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축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적응유연성 개념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위험변수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장애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원가족 분리가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입소이전의 가족 환경,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시설보호 이전의 부모자녀관계는 입소원인에서도 반영되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입소한 아동과 초기에 안정적인 양육을 경험했던 아동은 가족해체(이혼, 별거)로 입소한 아동, 가족 경험이 없거나 아주 한정된 경험을 한 아동(미혼모의 아동, 사생아들)들보다 정서적·행동적인 문제를 적게 보였다(정선욱, 2002).

김여환(2002)에 의하면 가족문제의 이유(별거, 가출, 이혼 등)로 입소한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이유로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보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인 안정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입소원인과 시설보호 청소년이 보이는 정서적·행동적 문제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위험요소

위험요소는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 특성들을 의미(Compas, Hinden & Gerhardt, 1995)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위험모델 연구에 따르면 개인내적 위험요소로 우울, 불안과 가족관련 위험요소로 구조적 결손 과 사회환경적 위험요소로 물리적 주거환경과 심리 사회적 환경을 꼽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위험요소로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와 우울·불안을 위험요소로 보았다.

### 1) 시설환경의 불만족도

일반적으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구분해 볼 때, 아동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환경이다. 그런데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환경이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의 시설 생활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열악한 시설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증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정선욱, 2002).

시설환경은 물리적 환경인 의식주 및 가정 안의 일상환경, 학교관련 환경, 지역사회와 관계된 환경과 아동이 지각한 보호자의 양육태도, 시설구성원 상호 간의 태도, 응집력 등을 말하는 심리적 환경으로 대별된다(이준의, 1997).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환경이 아동 발달,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uysse, 1997). 이미혜(2002)의 연구에서도 시설의 심리적 환

경 가운데 보호자의 개방적 태도, 보호자의 자율적 태도가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1993)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또는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화적 실조 환경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시설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정서문제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며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았으며 즉, 시설환경을 지지적이고 편안한 곳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양육환경에 얼마나 불만족하는가를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2) 우울·불안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시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 성향과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민자, 1992; 조현경, 1995).

박현선(1998)은 학교적응유연성의 위험요소로 우울/포기 성향, 충동/공격성향을 꼽았다.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불안, 반항, 자학적 행동, 비행, 학교생활의 문제, 학습장애, 과활동성, 공격적 행동, 신체적 고통 등의 외적인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된다.

염미영(1987)은 시설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특성불안 및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면 남자 중학생이 낮은 불안 경향이 있고 남자 고등학생이 높은 불안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은 시설아동의 우울성향은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경우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높다고 하였다.

학교 적응도 자아정체감이 낮은 경우에, 학령기 초등학생보다 청소년기 고등학생이,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낮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와 위험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자아탄력성과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적응과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6. 자아탄력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상의 특수성상 대구와 경북에 위치한 시설에 협조를 구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김천, 안동, 문경, 상주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14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부실 자료를 제외한 140명의 자료만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0

변인	내용	빈도	%
성별	남	69	49.3
	여	71	50.7
연령	8-13세	48	34.3
	14-16세	50	35.7
	17-19세	42	30.0
거주기간	5년 이하	52	40.0
	5-10년 이하	51	39.2
	10년 초과	27	20.8
입소 시기	4세 이하	23	17.0
	5-7세 이하	48	35.6
	8-11세 이하	46	34.1
	12세 이상	18	13.3
부모와 함께 산 경험	유	113	85.0
	무	20	15.0

※ 무응답으로 인해 빈도 차이가 남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49.3%)에 비해 여아(50.7%)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연령은 14-16세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13세(34.3%), 17-19세(30.0%)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0년 이하(39.2%), 10년 초과(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입소시기는 5-7세 이하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11세 이하(34.1%), 4세 이하(17.0%), 12세 이상(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우가 85.0%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1) 자아탄력성

Block & Block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자아탄력성 척도를 구자은(2000)이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거의 안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72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적응

김은진(2001)의 사회적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안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81로 나타났다.

#### 3) 내외통제성

어은주(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외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62로 나타났다.

#### 4) 사회적 지지

김수진(2002)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용하였다. 박지원(199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기초로 하고 윤혜정(1993), 김승미(1998)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쉬운 용어로 보완한 것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친구, 후원자님, 부모님에 대해 각각의 질문에 표시 형식으로 총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마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체크된 문항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지망의 크기를 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96으로 나타났다.

#### 5) 부모·자녀유대관계

시설생활 이전에 부모와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 Paker등(1976)의 부모유대관계척도의 돌봄척도(12문항)를 사용하여 부모·자녀유대관계를 측정하였다. '거의 안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설생활이전에 부모와 생활해본 경험이 없는 아동은 '해당없음'에 표시하였다. 높은 점수는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을 반영하고 낮은 점수는 정서적 냉정함과 무관심을 반영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88로 나타났다.

#### 6) 우울·불안

정선옥(2002)이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YSR 가운데 사회적 우울·불안 정도에 대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79로 나타났다.

#### 7)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는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1문항과 시설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5문항을 합산하여 총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거의 안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70로 나타났다.

#### 8)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입소기간, 입소시기,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험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4.3.3~2004.3.17 사이에 실시하였다. 시설보호 아동용 설문지는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각 시설의 교육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h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140

변인	평균(M)	표준편차 (SD)	점수범위
내외통제성	3.16	.53	1.60 - 4.80
사회적 지지	32.39	19.20	.00 - 75.00
부모자녀 유대관계	3.54	.77	1.42 - 5.00
우울·불안	2.37	.64	1.08 - 4.33
시설환경 불만족도	2.60	.76	1.00 - 5.00
자아탄력성	3.23	.51	1.42 - 4.42
사회적 적응	3.22	.53	2.00 - 4.7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 중에서 내외통제성은 3.16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32.39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3.54로 나타나 점수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볼 때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이 내외통제성과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위험요소 중에서 우울·불안은 2.37로 나타났으며, 시설환경 불만족도는 2.60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약간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3.23, 사회적 적응은 3.22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약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2.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호요소 중에서 내외통제성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유대관계	우울·불안	시설환경 불만족도
자아탄력성	.312***	.095	.154	-.451***	-.316***

\*\*\*p< .001

즉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소 중에서 내외통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r=.31, p<.001$ )을 보여 시설보호아동의 내외통제성이 높을 때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소는 모두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우울·불안( $r=-.45, p<.001$ )과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 $r=-.32,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수준이 낮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현진(1996)이 그의 연구에서 자아가 탄력적인 집단은 자아가 경직된 집단보다 지각된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가 탄력적일수록 자아가 경직된 집단보다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라 하겠다.

시설환경은 시설아동에게 가정적 기능을 대행해주는 중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시설환경에 불만족한 아동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자아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된다(조은미, 1984).

3.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와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유대관계	우울·불안	시설환경 불만족도
사회적 적응	.130	.500***	.460***	-.307***	-.577***

\*\*\*p<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와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호요소 중에서 사회적 지지( $r=.50, p<.001$ )와 부모자녀 유대관계( $r=.46,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 또한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높을 때 시설 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의 연구에서 시설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 관계로 높이 평가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성향이 낮고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정선옥(2002)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설보호 이전의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냉정함과 무관심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은 위험요소 모두 즉 우울·불안( $r=-.31, p<.001$ )과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 $r=-.58,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수준이 높을 때,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 때, 사회적 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높이 지각하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높다고 한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지지원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최진아(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4.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보호요소, 위험요소의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인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상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beta$	$R^2$	$R^2$ Change	T
우울·불안	-.279	-.330**	.140	.140	-3.532***
내외통제성	.197	.200*	.178	.038	2.142*

\* $p<.05$  \*\* $p<.01$  \*\*\* $p<.001$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 중에서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위험요소인 우울·불안( $\beta=-.33$ )으로 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보호요소인 내외통제성( $\beta=.20$ )이 변량의 3.8%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호요소인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사회적지지, 위험요소인 시설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서 시설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위험요소인 우울·불안이 보호요소인 내외통제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낮을수록,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설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성향은 가족과 분리되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외로움과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하여 불안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유재은, 2001).

또한 시설아동과 청소년들은 욕구좌절상황을 경험하면서 좌절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려 타인에 의해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한정원, 1989) 결과로 보아 내적통제성을 강화하는 보호요소의 증진과 함께 우울·불안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위험요소의 감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소, 위험요소의 영향력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가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보호요소·위험요소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beta$	$R^2$	$R^2$ Change	T
시설환경 불만족도	-.382	-.494***	.366	.366	-7.058***
사회적 지지	.012	.439***	.546	.180	6.268***

\*\*\* $p<.001$

시설환경 불만족도( $\beta=-.494, p<.001$ )는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나타났고 3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 $\beta=.439, p<.001$ )는 변량의 18%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보호요소로 나타났고 두 변인은 5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시설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은 보호요소인 사회적 지지보다 보다 위험요소인 시설환경 불만족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호요소인 내외통제성, 부모-자녀유대관계와 위험요소인 우울·불안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가정을 대신하여 시설에서 자라나는 시설아동에게 그들의 시설환경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열악한 시설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되며(정선옥,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가 주로 시설환경적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이재진, 1999)결과는 시설환경 불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위험요인임을 지지해준다.

사회적 지지가 위험요소인 시설환경 불만족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소로 나타난 결과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불만족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인 학교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부모가 규칙적인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간의 대리적 보호가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여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

### 6.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사회적 적응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아탄력성 집단에 따른 사회적 적응

집단	N(%)	M (SD)	t 값
낮은 집단	66(47.1)	3.10 (.50)	2.729**
높은 집단	74(52.9)	3.34 (.54)	

\*\*p< .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 집단에 따라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9, p< .01). 즉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의 사회적 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osmitizki와 John(1993)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능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능은 인지적 구성요소인 사람을 이해하는 것, 통찰을 하는 것, 사회적 규율을 아는 것 등과 행동적 구성요소들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사회적 적응능력, 대인관계에서 따뜻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상관관계분석 결과 보호요소 중에서 내외통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시설보호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높을때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소인 우울·불안,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우울·불안과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을 때 자아탄력성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은 상관관계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많을때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높을때 사회적 적응도 높아지며, 우울·불안,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을때 사회적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위험요소인 우울·불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보호요소인 내외통제성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아동의 우울·불안이 낮을수록,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위험요소인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보호요소인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은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요소보다 우울·불안과 시설환경 불만족도의 위험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요소의 육성보다 위험요소의 제거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반영한다.

이 결과는 일반청소년과 빈곤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박지아, 2001; 박현선, 1998; 양국선·장성숙, 2001) 보호요소의 영향력이 위험요소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시설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인지 밝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위험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발견은 시설아동과 청소년의 복지개입에 방향과 함의를 제공한다.

시설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직접적 개입방법 외에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내적통제성을 강화하는 보호요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본다.

시설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수준을 약화시키고 통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내적 보호요소를 증진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

복지정책차원에서 시설환경의 불만족도가 사회적 적응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인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시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의 개선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육사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육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시설환경 불만족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원인 학교교사와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경북북부지역의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조사대상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의 연령차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소보다 위험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많은 요인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보호요소와 위험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요인을 포함하여 인과관계나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이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은 반면 시설보호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시점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고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와 위험요소를 밝혀 시설보호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안과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8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1월 13일

#### 【참 고 문 헌】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

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황순택(2001). CCQ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김기환(1996).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개발 방향, 아동복지 사업의 새로운 비전. 21회 아동복지세미나.
- 김민자(1992). 일반 및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2). 사회적 지지가 시설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여환(2000). 시설청소년의 성장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3). 시설아동의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1).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응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기독교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아(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안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 매커니즘.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5권.
- 박현선(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회.
-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1.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3.
- 신소희(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 교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1997). 육아시설아동의 퇴소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20, 151-192.
- 양국선·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12(3), 127-148.
- 양혜승(1973).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미영(1987). 시설청소년의 특성 불안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재은(2001).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5).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미혜(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의(1997).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양육모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선옥(2002).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미(1984). **시설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경(1995).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정원(1989). **시설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반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va, S. A. & Padilla, A. M.(1987).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 American Students*. Los Angeles, CA: National Council of La Raza.
- Billings, A. G., & Moos, R. 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Collins(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er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uhrmester, D.(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Byusse, W. H.(1997). Behavior problems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 645-659.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Fine, S. B. (1991).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 Who rises above adversity? 1990 Eleanor Clarke Slagle Lectu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6), 493-503.
- Fullerton, C. S., & Ursano, R. J.(1994). Preadolescent peer friendships: a critical contribution to adult social related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 43-63.
- Furman, W.(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entschel, U., Sumbadze, N. & Shubladze, S.(2000). The effect of the I-E locus of control conviction on remembering and planning one's life: Individual differences in life event reports of Georgian respon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8, 443-454.
- Hodges, J. & Tizard, B.(1989).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77-97.
-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tion. *Journal of Adolescents Health* 12, 597-605.
- Kadushin, A.(1980).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N.Y.
- Kosmitzki, C., & John, O. P(1993). The implicit use of explicit conception of soci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11-23.
- Levitt, M. J., Guacci, N., & Levitt, J L.(1992).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A study of three grade levels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Luthar(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Robins,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 M.(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1, 157-171.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